

## 『病院經營의 活路를 開拓하는 해』가 되었으면...

한 해를 보내면서 갖는 서운함과 아쉬움, 그리고 다시 새 해를 맞으면서 품는 희망과 期待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心情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病院經營이란 側面에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았고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일들이 山積된채 本人이 大韓病院協會長이란 重責을 受任받았기 때문에 새 해가 우리 病院界에 새로운 希望과 勇氣를 주고 病院經營의 活路를 開拓하는 해로 바뀌었으면 하는 所望이 그 누구보다도 懇切하다고 느껴집니다.

實로 지난 해는 우리 病院界로서는 多事多難했었던 한 해 였습니다.

年初부터 一部 民間病院을 對象으로 實施된 監査院의 異例的인 監査는 全国 私立病院에 큰 衝擊波로 傳播되었고 監査結果에 對한 異議가 提起되어 檢査料 論争과 材料代 非給與部分에 對한 負擔問題 等 말썽의 씨앗이 病院界의 宿題로 남아 있습니다.

그 餘波로 医療界와 保險者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一部 材料代에 對한 協約價를 決定 施行케 되었으나 醫療保險 藥價를 全面 改正 하므로써 病院의 流通去來幅이 平均 6.25%씩이나 大幅 引下 調整되어 結果的으로 病院의 收入이 激減케 될 것으로 憂慮됩니다.

雪上加霜으로 우리 醫療界에 적지 않은 衝擊을 주고 있는 또하나의 驚愕은 政府에서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施行令』을 改正(1984. 7. 21大統領令 第 11,474号)하여 '84. 10. 19부터 醫療를 서어비스업의 範圍에 包含 團束하게 되므로써 從前 本會가 會員病院의 權益保護와 患者에게 適正診療保障을 為해 取했던 措置等이 同法 第18條 第1項에 違反된다는 經濟企劃院의 指摘입니다.

따라서 지난 해에 本會가 「農協의 醫療保險酬價適用要請」과 關聯하여 數次에 걸친 理事會에서 『現行 醫療保險酬價水準이 原價補償에 미치지 못하여 病院經營을 날로 惡化시키고 있으며, 醫療保險對象이 아닌 者에게 醫療保險酬價를 適用하는 特例를 認定할 경우 그 範圍가 無限大로 擴大되어 患者의 適正診療를 保障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判斷, 醫療保險酬價의 適用이 不可함』을 決議함과 同時에 이를 各市·道支部를 通하여 會員病院에 周知시킨 事實과,

---

---

大韓病院協會 會長

白 樂 院



各種 損保会社 및 共濟組合 등이 自社營利爲主로 診療費 限度額 設定과 診療費 割引 등을 骨子로한 契約書를 만들어 會員病院에 個別契約을 懲憑하고 있는 事態와 關聯하여 契約條件協議는 本會로 窓口를 一元化하고 全國病院이 同一한 契約條件을 適用토록 하자는 本會 第25次 總會議決과 이에 따른 共同決議文 作成 및 損保社와의 指定病院 契約締結을 留意키로한 本會 常任理事會의 議決 등은 『協會가 病院의 自由로운 事業活動을 不當하게 制限하는 競爭制限行爲...』이기때문에 同法 第18條 1項에 違反되므로 撤回해야 된다는 經濟企劃院의 要請을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醫療界를 더욱 沈滯속으로 몰아 넣었던 要因의 하나가 醫療保險 酬価는 当初 出発에서부터 지나치게 非現實的으로 策定되었었기 때문에 그동안 每年 政府當局에서 비록 低率이나마 部分的인 酬価引上을 施行해 왔었으나 지난해만은 그것마저도 凍結하므로써 醫療機關들이 史上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經營難에 逢着케 되었다는 事實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憂慮하고 있는 點은 適正한 診療酬價가 保障되지 못할 때 經營難으로 醫療의 質은 低下되기 마련이고 그 被害는 醫療機關뿐만 아니라 患者에게도 돌아가게 된다는 惡循環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모두가 갖는 懇切한 所望은 病院들이 患者에게 最善의 診療를 提供할 수 있도록 諸般經營與件이 改善되어 새로운 活路가 開拓되었으면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